

지역 소식통

정읍,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태권유랑단 녹두' 공연 개최

정읍시는 오는 29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해 태권소리극 '태권유랑단 녹두'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의 일환으로 올해는 정읍시가 공모에 선정돼 전북자치도의 특화 브랜드 공연이 무료로 진행된다.

태권유랑단 녹두는 녹두장군 전봉준이 이끌었던 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인물들의 진실과 꿈의 의미를 그린 역사 판타지극이다.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들과 퓨전국악실내악단 '소리' 등 지역 예술단체들이 참여해 전북자치도만의 특성화된 브랜드 공연으로 제작됐다.

공연 중 태권도의 절도 있는 품새와 겨부기, 고난도 격파, 칼 군무에 국악 등의 신명을 더했다.

공연 관람은 시작 30분 전부터 선착순 무료입장이며, 공연은 오후 3시, 7시, 총 2회 70분씩 진행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46억6600만원 부과

정읍시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4만2,000여건에 대한 자동차세 46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기분 대비 5.1%(2억2,8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세 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 고지되며, 이번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세가 45만원 이상이면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차량은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방문 납부 외에도 ATM/CD(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 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연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주관으로 부안군 읍포면 노을빛정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 대해 연기를 요청해 공청회 개최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서는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읍포면 노을빛 정원에서 부안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보안, 변산, 진서, 읍포, 위도 5개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주민들이 공청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부안군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 연기를 결정했다.

변경된 공청회 일시와 장소는 부안군청 홈페이지, 한빛원자력본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티에스윈드 본사 부안 이전

부안군, 세계적 풍력발전 솔루션 제공 업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세계적인 풍력발전 솔루션 제공 업체인 티에스윈드(TS Wind Co., Ltd.)가 본사를 부안군으로 이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사 이전은 티에스윈드의 성장과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티에스윈드는 지난 2015년 설립 이래

풍력발전 산업에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설계, 조달, 생산, 설치, 시운전 및 운영 및 유지보수(O&M)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본사 이전은 티에스윈드가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이전한 본사는 부안군 신재상에너지

로 28에 위치하고 있으며 티에스윈드는 본사 이전을 통해 부안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식 티에스윈드 공동대표는 "이번 본사 이전은 티에스윈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부안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학수 시장, 정읍천 핫플레이스 물 테마시설 공사현장 방문

정읍천 미로분수 조성사업 현장 최종 점검... 7월 6일 운영 예정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14일 정읍천 핫플레이스 물 테마시설 조성 사업 현장에서 공사현장 등을 점검했다.

이날 시는 민선 8기 관광분야 공약사업인 정읍천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

과 관련해 미로분수 공사현장 최종 점검과, 벽천분수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보고회에서는 정읍천 핫플레이스 미로분수 공사현장을 최종 점

검해 정읍천 미로분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또 내년 6월까지 조성 예정인 벽천분수 실시설계 추진 상황 보고회도 함께 실시했다.

미로분수는 전국 최초로 음악 분수 공연, 미로분수 연출, 물놀이형 수경시설, 거울연못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형 바다분수다.

지난해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올해 6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7월 6일부터 음악분수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여름철 물놀이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벽천분수는 정읍천 재방을 활용해 워터스크린, 야간경관, 분수 등을 결합한 시설로, 내년 6월부터 본격 운영해 정읍천을 관광 핫플레이스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천에 물을 테마로 한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객 유입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14일 정읍천 핫플레이스 물 테마시설 조성 사업 현장에서 공사현장 등을 점검했다.

'안전 최우선' ... 부안군, 대회·행사 전격 취소

지진 발생 따라 국제요트·유도·보치아·전국매창 휘호대회 등 주말 대회·행사 취소

부안군이 최근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여진 우려 등으로 지난 15~16일 개최 예정이었던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군은 14일 부안에 슬하관에서 예정됐던 2024 포포츠 내한공연 '포포츠 프라임 타임' 공연을 온택트 공연으로 변경해 유튜브에서 무료 라이브 공연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입장료 환불에 들어갔다.

이미 15개국에서 선수단 200명을 포함해 총 400여명이 입국한 2024 아시안컵&제9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도 대회 조직위원회가 강진 발생으로 인한 안전 우려로 14일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

15일 개최 예정이던 제4회 부안군수배 유도대회와 제16회 전국매창 휘호대회는 취소했으며 제8회 부안 붉은노을배 보치아 선수권 대회는 부안에서

개최를 취소하고 인근 시군에서 개최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강진으로 인한 여진 등 안전에 대한 우려로 주말 예정된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전격 취소했다"며 "향후 여진 등 지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시설·지역 예찰 강화 등 부안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국 미니수박 출하량 20% 선점 목표' | 고창군 농기센터서 '미니수박 평가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1·2인 가구를 겨냥한 전국 미니수박 출하량 20%선점을 목표로 다양한 전략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4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니수박 평가회가 열렸다. 고창미니수박연합회 회원들과 김철태 고창부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농축수협 기관사회단체장, 농업인학습단체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농촌진흥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도 함께해 고창 미니수박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번 평가회는 수박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고창 미니수박 발전 전략에 대해 토론하고, 미니수박 각 작목반에서 생산한 수박 품질별 품질평가가 이뤄졌다. 고창에서는 4kg 이하의 미니수박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다.

품질도 애플수박 종류인 피망스, 세자와 애플수박보다 조금 더 큰 블랙망고, 블랙박스, 흑금성 등 다양하다. 고창군은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미니수박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자 종묘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일반수박 재배법과 많이 다른 미



지난 14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니수박 평가회가 열렸다.

니수박 재배기술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며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 함께 미니수박 토양 및 양분관리 기술 현장실증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화도 추진됐다. 2022년 고창군의 5개 작목반이 하나로 뭉쳐 고창미니수박연합회를 결성했다. 고창미니수박연합회는 약 100명의 회원이 89.4ha에서 중·소과종 수박인 블랙망고수박과 블랙박스수박, 애플수박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미니수박 규모의 20% 선점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김철태 고창부군수는 "얼마전 고창수박의 원산지를 보호받을 수 있는 지리적표시 등록심사에서 조건부 등률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다"며 "수박하면 고창이듯이 미니수박도 고창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미니수박의 브랜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뿌리고창인' 을 찾습니다

고창군, 28일까지 신청... 9월 뿌리고창인증 발급 및 우대정책 시행

고창군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고향사랑을 실천해 오신 분들을 찾아 예우(禮遇)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뿌리고창인 정책적 지원우대'는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공약이다. 심덕섭 군수는 취임 취임 강조사항으로 "평생을 고향에 더 잡고 살아오시며 청정 자연환경과 세계유산을 소중하게 지켜오신 군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귀농귀촌 등 외지 인구 유입책과 맞물려 고창에서 나고 자란 군민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뿌리고창인 신청대상은 70년 이상 출생부터 고창에 계속 살고 있거나 3대 이상 출생부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 구성원이다.

6월17~28일까지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제공동의서, 주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준비해 주민등록 소재지 고창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뿌리고창인 운영위원회에서 신청 서류 확인 및 선정 적정 여부를 심의해 7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대상자 선정 통보, 9월 뿌리고창인증 발급 및 우대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될 경우 동호·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및 랍사르 온곡습지&선운산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종량제 봉투 지급, 문화의 전당 공연 관람료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을 사랑하고, 지역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가는데 앞장서 오신 뿌리고창인을 찾고 행정적·재정적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성 기자



부안군은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인해 불안감 및 우울감을 느끼는 군민을 위해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부안군, 지진 관련 재난심리 지원 제공

부안군은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인해 불안감 및 우울감을 느끼는 군민을 위해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부안군청 앞에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하고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했다.

마음안심버스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지진을 겪은 군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검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평가 및 상담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안정기 및 심리지원 내용을 담은 리플릿 등을 지원했다.

또 군과 행정안전부 및 전북특자도,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가 협업체 부안읍·행안면·계화면 일원에서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재난심리활동가 15명이 마을 단위로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복구를 위해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센터에서는 향후에도 재난 경험자의 심리회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찬병 부안군보건소장은 "이번 지진이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민의 심리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정신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진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는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3-581-5830)으로 연락하면 되며 정신건강 위기상담을 위한 상담전화(☎ 1577-0199)도 24시간 운영 중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4~5월 고창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 보물 스탬프투어 '큰 호응'

온·오프 총 620여명 참가... 9월 재개

고창군이 지난 4~5월 2개월간 진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 보물 스탬프투어가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종료됐다.

고창군은 스탬프투어에 온라인 참여자 206명, 오프라인 410명으로 총 620여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스탬프투어는 관광객들이 고창의 세계유산 7가지 보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동시에 지역 관광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스탬프투어가 관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창군은 온라인 미션 완료자 중 매일 20명을 추첨하여 마그네틱 5종, 스노우볼 등을 지급하고, 오프라인 미션 완료자 전원에게는 배지 7종, 문구세트 등을 지급했다. 스탬프 투어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며, 참여 방식과 완료 기념품에 차이를 뒀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더불어, 여행가는 달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오프라인 스탬프 투어만 특별



연장해 운영하고, 하반기 스탬프투어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9~10월에 재개될 예정이다.

오미숙 고창군 관광산업과장은 "이번 스탬프 투어 이벤트로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 보물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9~10월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스탬프투어는 온라인(고창군청 관광산업과 063-560-2949), 오프라인(고창문화관광재단 070-4914-7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성 기자